

보도시점 2025. 4. 22.(화) 22:00 (국제엠바고) 배포 2025. 4. 22.(화) 15:00

국제통화기금(IMF),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5년 세계 2.8%, 한국 1.0% 성장 전망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4.22일(화) 22시(美 워싱턴 D.C. 현지 시각 9시)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망에서는 최근의 높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단일 전망(baseline) 대신, 전망 기준일에 따른 '기준 전망(reference forecast)'과 '보완 전망(alternatives)'을 함께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준전망에서 '25.4월 기준 반영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별 성장률을 전망하되, 보완전망을 통해 ①4.2일(상호관세 부과) 이전 및 ②4.9일(상호관세 유예 및 美·中 보복관세) 이후 기준 전망으로 세계 성장률 범위 추가 제시 (다만, 보완 전망은 지역·국가별 전망 미공개)

먼저, 국제통화기금은 4.4일을 기준으로 한 기준 전망에서는, 무역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Delta 0.5\%p$ 하향한 2.8%로 전망하였다.

보완 전망에서는 ①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4.2일 이전 기준으로는, 미국의 2~3월 무역정책, 높은 유가 전망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성장률이 대폭 둔화됨에 따라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Delta 0.1\%p$ 하향한 3.2%로 전망하였다.

②4.9일 이후 기준으로는, '25년에는 상호관세 90일 유예의 효과가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하락으로 상쇄되어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26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이득을 넘어섬에 따라 기준 전망(3.0%) 보다 소폭 낮은 2.9%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1월전망 대비 %p)	'25년 세계 성장률 전망	'26년 세계 성장률 전망
'25.1월 전망	3.3	3.3
기준전망(4.4일 기준)	2.8 ($\Delta 0.5$)	3.0 ($\Delta 0.3$)
보완전망①(4.2일 이전)	3.2 ($\Delta 0.1$)	3.2 ($\Delta 0.1$)
보완전망②(4.9일 이후)	2.8 ($\Delta 0.5$)	2.9 ($\Delta 0.4$)

국제통화기금은 국가별·지역별 성장률은 기준 전망만 제시하였으며, 선진국 그룹의 '25년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 대비 $\Delta 0.5\%p$ 하향된 1.4%로 예측하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1.8%)은 정책 불확실성, 무역 긴장,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25년 성장률이 대폭 하락(1월 전망대비 $\Delta 0.9\%p$) 조정되었고, 영국(1.1%), 독일(0.0%), 프랑스(0.6%)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일본(0.6%)도 하향 조정되었다. 한편, '25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1.0%로 전망(1월 전망대비 $\Delta 1.0\%p$)하였다. (※ 한국은 구체적 평가 없이 부록에 수치만 제시)

신흥개도국 그룹의 '25년 성장률은 1월 전망 대비 $\Delta 0.5\%p$ 하향한 3.7%로 전망되었다. 중국은 예상보다 견조한 '24.4분기 실적 및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으로 '25년(4.0, 1월대비 $\Delta 0.6\%p$), '26년(4.0, 1월대비 $\Delta 0.5\%p$) 성장 전망이 모두 하향되었다. 멕시코($\Delta 0.3\%$)는 '24년 말 이후 부진한 경제활동과 더불어 미국의 관세 부과, 지정학적 긴장, 긴축적 금융환경으로 금년 성장률이 지난 전망 대비 대폭 하향($\Delta 1.7\%p$) 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美 관세 조치 인하와 상호 협상 등이 진전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고조된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권고하였다. 먼저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하고,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자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국가별 금융·외환시장 성숙도에 맞는 적절한 개입 및 건전성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밖에 중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여성·고령층 노동 참여 제고와 AI·디지털 기술 투자확대, 규제 정비 등의 노력도 촉구하였다.

※ 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IMF 홈페이지(www.imf.org)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	책임자	팀 장	배경화 (044-215-4840)
		담당자	사무관	권혁률 (bamryul@korea.kr)

참고 1

'25.4월 IMF 세계경제전망 (4.22(화) 발표)

(단위 : %, %p)

	'24년	'25년			'26년		
		'25.1월 전망 (A)	'25.4월 전망 (B)	조정폭 (B-A)	'25.1월 전망 (C)	'25.4월 전망 (D)	조정폭 (D-C)
세 계	3.3	3.3	2.8	△0.5	3.3	3.0	△0.3
선진국	1.8	1.9	1.4	△0.5	1.8	1.5	△0.3
미국	2.8	2.7	1.8	△0.9	2.1	1.7	△0.4
유로존	0.8	1.0	0.8	△0.2	1.4	1.2	△0.2
독일	△0.2	0.3	0.0	△0.3	1.1	0.9	△0.2
프랑스	1.1	0.8	0.6	△0.2	1.1	1.0	△0.1
이탈리아	0.7	0.7	0.4	△0.3	0.9	0.8	△0.1
스페인	3.2	2.3	2.5	+0.2	1.8	1.8	0.0
일본	0.1	1.1	0.6	△0.5	0.8	0.6	△0.2
영국	1.1	1.6	1.1	△0.5	1.5	1.4	△0.1
캐나다	1.5	2.0	1.4	△0.6	2.0	1.6	△0.4
한국	2.0	2.0	1.0	△1.0	2.1	1.4	△0.7
호주	1.0	2.1	1.6	△0.5	2.2	1.4	△0.8
기타 선진국	2.2	2.1	1.8	△0.3	2.3	2.0	△0.3
신흥개도국	4.3	4.2	3.7	△0.5	4.3	3.9	△0.4
중국	5.0	4.6	4.0	△0.6	4.5	4.0	△0.5
태국	2.5	2.9	1.8	△1.1	2.6	1.6	△1.0
인도	6.5	6.5	6.2	△0.3	6.5	6.3	△0.2
러시아	4.1	1.4	1.5	+0.1	1.2	0.9	△0.3
브라질	3.7	2.2	2.0	△0.2	2.2	2.0	△0.2
멕시코	1.5	1.4	△0.3	△1.7	2.0	1.4	△0.6
사우디	1.3	3.3	3.0	△0.3	4.1	3.7	△0.4
남아공	0.8	1.5	1.0	△0.5	1.6	1.3	△0.3